

## 지역 연구에서 문화 연구로

노 순 래 | 전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서울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한국전력공사 근무(1966~  
1994, 최종직위: 영광원자력  
본부장)  
한전원자력연료(주) 근무  
(1994~2000, 최종 직위: 사장)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 1887~1948)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로 널리 알려진 저명한 석학이다. 그녀는 컬럼비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인류학 교수로 봉직하곤 하였다.

그녀가 문화인류학자로 명성을 날리게 된 배후에는 「국화와 칼」(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이란 저서가 1946년 출판된 이후인데, 이 책은 고전적인 일본 연구서로서 문화인류학적 방법론으로 일본 문화의 원형을 탐구한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나가는 1944년 6월 미 국무부의 위촉으로 집필된 이 책은 보통 일본인의 행동과 사고(思考) 양식을 탐구한 것이다.

### 지역 연구서 '국화와 칼'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예를 들면, 일본 포로들이 군사 기밀을 쉽게 내주는가 하면 가족과의 접촉을 꺼리는 행동은 미군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종전 후 일본을 점령하게 될 미 군정 당국은 일본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 「국화와 칼」은 전쟁의 요구로 또한 지역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전쟁 기간 중 일본을 직접 방문할 수 없었던 미국인들에게 「국화와 칼」은 풍부한 일본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지역 연구의 결과물인 이 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엇갈린 시비가 있었다.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의 서적으로 평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을 직접 방문한 경험이 없는 그녀의 저작에 신뢰성이 의심스럽다면서 인종 차별성을 폄하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에서 민주 국가로 큰 변화가 있었으나 『국화와 칼』은 지역 연구서로서 고전적 가치가 있

다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다.

프랜시스 슈(Francis Hsu: 1909~1999)는 인류학자 중 가장 많은 저서를 남긴 인물이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에서 35년간 인류학과를 이끌면서 미국인류학협회의 회장직을 역임한 슈는 중국에서 출생했으나 교육은 유럽에서 받았다. 194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특히 중국 대륙이 공산화된 이후 중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인 미국 사회를 위해 미국과 중국이란 두 대국의 문화 차이를 비교 연구하는 작업에 매진했다.

그가 다룬 분야는 두 나라의 문학, 예술, 성, 사랑, 여성의 역할, 부모, 자녀교육, 사회의 가치와 요구, 범죄, 결혼, 계급, 뇌물, 부패, 종교, 경제 생활 등 다양한 문화인류학의 관심사였으며, 특히 두 나라의 문체(사회악)를 깊게 연구했다. 예를 들면 미국 사회의 고질병인 인종 차별, 성범죄, 폭력, 노인 문제를, 중국의 사회 문제인 여성의 무력한 지위와 취약한 경제력, 전족, 과학의 부재, 봉사 정신의 결여, 과거 청산의 부재, 등 두 나라의 사회악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 지역 연구의 세계화

베네딕트와 슈가 연구한 지역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냉전이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적을 알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조직적인 기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거대 기업이나 미국 사회과학연구협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능했다. 특히 SSRC는 공적, 사적 자금을 조성하여 각 대학의 지역 학과에 연구 지원을 했는데, 예로서, 록펠러재단은 프랑스의 사회과학을 재편하는 데 많은 자금을 할당했다. 이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프랑스인들이 공산주의에 맞설 수 있는 과학적인 사회과학을 굳건히 하기 위함이었다. 포드재단도 베트남 전쟁 기간 중 일본 교토대학의 동남아 연구를 지원했고 인도, 인도네시아에도 수년간 지원을 계속한 바 있다.

미국이 지역 연구를 시작한 것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세계 질서를 재편성하면서 군사,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세력 확장을 위해 외부 세계의 정보가 부족함을 절감했던 미국은 지역 연구에서 얻은 많은 정보가 정부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매우 유의했음을 인식했고 따라서 많은 전문가를 양성하게 되었다.

미시간대학의 로버트 홀(Robert Hall) 교수는 SSRC에 세계 지역 연구를 제안했는데, SSRC 회장이었던 그는 대학 내에 『일본연구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하버드대학의 페어뱅크(John K. Fairbank) 교수도 베트남전에서 미국인들

미국이 지역 연구를 시작한 것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세계 질서를 재편성하면서 군사,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세력 확장을 위해 외부 세계의 정보가 부족함을 절감했던 미국은 지역 연구에서 얻은 많은 정보가 정부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매우 유의했음을 인식했고 따라서 많은 전문가를 양성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 원자력계의  
한결같은 염원은 플랜트  
의 해외 수출이다.

그러나 플랜트 수출에는  
아직도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마치 사  
회과학이 지역 연구에서  
문화 연구로 방향 전환  
을 했듯이 우리 원자력  
산업계도 국내 시장(지  
역적)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문화적)으로의 방  
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  
다. 이를 위해 원자력 기  
술뿐 아니라 국제 무대  
에서의 원자력 외교, 재  
정 지원,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땀  
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아시아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아시아 연구에 더 많  
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차 대전 직후 새롭게 나타난 지역 연구 프로그램은 당시 어떤 종류의 지식  
이 요구되었는지를 보여준다. 1947년 발표된 『미국 대학에서의 지역 연구』에  
서 펜튼(William Fenton)은 통합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 자체가 기존의 역사학  
에 새로운 도전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그는 “미국 대학의 지역 연구는 현대 문  
명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지성사에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역사  
학적 연구 방법의 강력한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1950~60년대  
의 기능주의적 사회과학은 역사 그 자체에 대한 포기로 생각될 수 있다는 논평  
이다. 2차 대전 끝 무렵에 나온 베네딕트와 슈의 연구처럼 과거의 사회과학은  
문화의 상호 작용과 특징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변화와 발전을 적절히 규  
명할 수 없었다는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지역 연구는 국가 안보 또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과 같은 국가 이  
득에 관련된 특정 지식만을 생산하도록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것이 지역 연구 자체의 권력 구성의 조건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역연구  
는 지식 생산을 통한 비판적 실천을 고무하는 대신에 정보의 체계적 수집만을  
장려해 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

### 문화 연구로의 이행

문화 연구는 지식을 하나의 생산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이에 반하여 지역 연구는 이를 철저히 간과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사회과학은 지역 연구로부터 문화 연구로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멋진 기술이 필요할 듯하다.

지금 우리 원자력계의 한결같은 염원은 플랜트의 해외 수출이다. 1970년대의  
세계 에너지 위기를 맞아 우리나라는 탈석유 전원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오늘  
날 전력 수요의 40%를 원자력으로 대체하게 되었고, 원자력 기술의 자립으로 일  
부 발전소의 기기와 자재, 설계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플랜트 수출에는 아직도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마치 사회과학이 지역 연구에서 문화 연구로 방향 전환을 했듯이 우  
리 원자력 산업계도 국내 시장(지역적)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문화적)으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 기술뿐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의  
원자력 외교, 재정 지원,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땀 나는 노력이 필요  
하다. 